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 9호

G-20 서울개발의제와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연계방안

목 차

Ⅰ. 서 론 ····· 01

Ⅱ. G-20 서울개발의제의 내용과 의미 ····· 03

Ⅲ.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개최의 의의와 안건 ···· 11

Ⅳ. G-20 서울개발의제와 HLF-4의 연계방안 ····· 18

KOICA WORLD'S FRIEND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Ⅰ. 서 론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돕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국제연합(UN)이 주도하여 최초로 '개발연대(Development Decade)'를 설정했던 그 진보를 향한 열정이 재점화되어 지난 10여 년간 국제사회를 풍미하고 있다. 새천년과 더불어 시작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지구시민의 양심을 자극하여 이 땅에 태어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인본주의적 운동으로 승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은 지난 2003년 로마회의를 시점으로 2005년 파리회의, 2008년 아크라회의를 거쳐 2011년 11월 부산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종결짓는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0년대의 첫 10년은 국제경제구조의 틀이 조정되는 시기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 하에 추진되어 온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체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시기였다. 2008년 이후의 국제금융위기는 이제는 더 이상 미국 혼자만의 노력으로 세계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여력이 한계에 부닥쳤음을 반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 속에 탄생한 새로운 지구적 지배질서체제 중 하나가 G-20이다.

G-20는 당초 동아시아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족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를 모체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금융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프랑스 칸 G-20 정상회의를 포함하여 총 6회의 정상급 회의가 개최되었다.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5회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제금융시장 개편 등 다양한 방안과 더불어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를 채택하였다. 서울정상회의는 개발의제를 G-20의 주요 안건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격차해소를 위한 새로운 추진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서울개발컨센서스'는 개도국 인프라 확충, 인적자원 개발, 무역과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성장지향적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G-20의 개발의제 제시는 그동안 UN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새천

년개발목표(MDGs)'의 이념 및 OECD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온 '원조효과성 제고' 운동에 새로운 과제와 도전을 제공하고 있다. 즉, 사회개발 중심의 개발과제와 원조집행과정의 효율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1970년대 이전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제시되었다가 잊혀져 가고 있던 경제성장의 담론을 환기시킴으로써 국제개발계의 지적 토론의 장(場)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2011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회 세계개발원조총회(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는 이러한 국제역학 관계 속에서 당초 예상하였던 원조효과성 특히 파리선언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라는 소극적인 주제를 뛰어 넘는 새로운 개발효과성이 중심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지난 해 개최국의 입장에서 G-20의 중심안건으로 개발의제를 부각시켰던 한국 정부의 시각이 HLF-4에서 다시 한 번 투영될지 모른다는 국제사회의 기대와 우려가 한데 뒤섞여 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전 세계가 찬탄해 마지않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기록하였고 스스로의 경제성장방식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으로 개발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의 개발경험은 20세기 후반 경제개발정책의 전범(典範)이 되었고 여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그 경험을 전수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성장중심적 개발전략은 인간중심적 개발전략을 추구하는 국제시민사회의 시각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주도 하에 개최될 HLF-4 부산회의의 논의 방향이 지나치게 정부주도형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전략으로 치우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글에서는 G-20 개발의제의 등장배경과 그 내용을 논하고, G-20 개발의제가 여하히 HLF-4 부산회의와 조화될 수 있는지,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의 개발경험이 국제사회의 주류 개발담론과 부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G-20 서울개발의제의 내용과 의미

1. 논의의 배경

G-20 정상회의는 2008년 미국 발 국제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로 그동안 6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서브프라임 위기로 촉발된 미국 발 금융위기의 발발 직후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정상회의부터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4차 정상회의까지는 아래 [표 1]과 같이 주로 국제금융질서를 안정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모임으로 회의의 의제가 마련되었다.

[표 1] 역대 G-20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워싱턴(2008.11.)	런던(2009.4.)	피츠버그(2009.9.)	토론토(2010.6.)
주요성과	▷ 거시정책 공조 강화 – 금융공급 확대 – 금리인하정책 시행 ▷ 금융시장 개혁 – 금융규제 및 국제 금융기구 개혁 ▷ 보호무역주의 경계	▷ 재정지출 확대 합의 – 재정확대 (5조달러), 경기부양효과 (GDP 4%p) 명시 ▷부실자산 처리 ▷ 보호무역주의 저지 – 2010년 말까지 연장 ▷ 신흥개도국 지원 – IMF 등 1.1조달러	▷ 재정지출 확대 지속 ▷ 국제 금융기구 개혁 – IMF 쿼터 재조정 – 세계은행 투표권 재조정 ▷지속균형성장정책 – 기후변화재원 조성 – 에너지안보 합의 – 식량안보 및 최빈국 지원방안 추진	▷ 국가 그룹별 정책 방향제시 – 선진적자국: 개방 – 선진흑자국: 내수 – 신흥흑자국 : 안전망 인프라, 환율 (한국은 신흥흑자국) ▷ 보호무역주의 저지 – 2013년 말까지 연장
의의	선진국과 신흥국의 첫 공조체제	실질적 처방 및 성과 도출	세계경제 최상위 협의체로 지정, 연례 개최 합의	한국 주도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도국 경제개발 이슈 공식화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10) “서울 G20 정상회의와 기대효과”

그러나 2010년 제4차 토론토 회의에서 한국의 제안으로 개도국의 경제개발 문제를 향후 G20 정상회의의 신규의제로 다루기로 약속하였다.[1] 이러한 배경에는 BRICs등 신흥공업국의 비중이 증가하고, 세계경제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선진국만의 경기회복으로는 지구적 규모의 불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G-20 정상들 간에

1)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and reducing poverty are integral to our broader objective of achieving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and ensuring a more robust and resilient global economy for all. In this regard, we agree to establish a Working Group on Development and mandate it to elaborate, consistent with the G-20's focus on measures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resilience, a development agenda and multi-year action plans to be adopted at the Seoul Summit(Paragraph 47 of the G-20 Toronto Summit Declaration).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에 개최된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는 11개 주제의 서울정상회의 문건 (Seoul Summit Document) 중 하나로 '동반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합의 (The 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안건을 세계경제체제 개편의 한 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2. G-20 서울개발의제의 내용[2)]

서울 G-20 개발의제는 6가지의 개발원칙[3)] 과 9개의 핵심분야를 제시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다년간 행동계획 (Multi-Year Action Plan on Development)'을 채택하였다. 또한 'G20 고위급 개발그룹 (G20 High Level Development Working Group: DWG)'[4)]에서 합의된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 과제를 논의하고 이후 그 이행을 점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G20 고위급 개발그룹은 후속 조치를 논의·검토하고 그 결과를 '교섭단 회의 (Sherpa Meeting)'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6가지 원칙 (Principles)

서울 개발 컨센서스에서는 개발 의제를 논의함에 있어 다른 국제기구, 혹은 국제공조 프로그램과 G20 정상회의 의제의 중복을 피하고 G20이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1) 경제 성장 중심 (Focus on Economic Growth), 2)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3) 전 세계/지역 별 협력시스템 (Global or regional systemic issues), 4) 민간부문의 참여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5)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프리미어 포럼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비교우위를 가진 부분에서의 개발 이슈 논의를 통한) 보완적/추가적인 기능(complementarity), 6) 성과 지향(Outcome orientation)이라는 여섯 가지 원칙을 명시하였다. 특히 이 6개 원칙을 통하여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개발의제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G20 정상회의 만의 개발의제 논의 영역을 특정화 하였다.

---

2) 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The G20 Seoul Summit Leaders' Declaration Annex 1) (2010년 11월 11일 - 12일, 서울)

3) G20 Development Principles : G20 정상회의 결과문서 제 1부속서 (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에 명시된 6가지 원칙 : 1) 경제 성장 중심, 2)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구축, 3) 글로벌 수준에서의 혹은 지역(대륙)별 제도 관련된 이슈 우선, 4) 민간 부문 참여, 5) 보완성(기존 국제원조 논의에 추가적인 기여), 6) 성과 중심

4) "G20 고위급 개발그룹"(용어) - 외교부 보도자료 용어 차용 (제 11-236호, "G20 고위급 개발그룹회의 결과", 배포일시: 2011년 3월 23일)

9가지 핵심영역 (Key Pillars)

서울 정상회의 결과로 이 여섯 가지 원칙하에 중기 (middle-term) 이행 과제가 수립되었다. 즉, 광대한 개발의 분야를 다시 9개 영역 (pillars)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다년간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을 세워 이행 과제를 구체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영역을 책임질 국가 혹은 국제기구를 배정하여 추후 활동의 책임 여부를 분명히 하였다.

(1) 인프라 구축 (Infrastructure)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은 한국정부에서 개도국과 저소득 국가의 경제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바탕으로 특히 강조한 영역이다. 서울 회의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행동계획을 세우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과 재정 조달 가능 여부, 특히, 재정의 국내 조달 가능성 등의 정보와 수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인프라 구축은 가능한 한 국내재원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찾도록 권고하는 한편, G-20은 지역 간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서울 정상회의는 인프라 구축 투자를 위한 'G-20 고위급 패널(high-level panel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1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G-20 고위급 패널은 다자개발은행(MDB)의 정책을 검토하고 재무장관 회의 및 최종적으로 2011년 칸 정상회의에 보고 할 의무를 진다. 또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정부와 민관협력사업을 통해서 혹은 민간영역의 재원 투자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로 개발그룹은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에서 "지역 간" 인프라 구축 사업을 G-20 차원에서 지원키로 하고 다자개발은행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 Development)

G-20은 또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을 두 번째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World Bank, ILO, OECD, UNESCO 등의 단체가 구체적으로 비교 가능한 기술 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진 인력에 대한 수요와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를 잡고자 하는 공급이 원활히 매치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인적자원 개발의 두 번째 세부 행동계획은 국가 내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 전략의 강화이다. 토론토 정상회의에 제출한 G-20 직업훈련 전략(Training Strategy)과 같

은 전략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진행 된 성과를 고려하여 중-최저 소득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2011년 6월 개발그룹 회의에서 최빈 개도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 훈련 전략 지원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본 프로그램은 말라위, 베냉, 방글라데시 등에서 시범 사업(pilot programme) 형식으로 먼저 시작하고 추후에 민간 투자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3) 무역 (Trade)

자유 무역과 투자가 세계 경제 회복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역 능력 강화 및 시장 접근성 강화 없이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교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빈 개도국을 위해서 비과세 및 쿼터제한을 없애야 할 것(duty free, quota free)을 주문하였다. 특히 남남 교역협력 강화와 인프라 구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를 주장하였다.

(4) 민간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Private Investment and Job Creation)

민간 투자 확대는 G-20 개발의제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강조되었다. 특히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부보다는 오히려 민간의 역할이 강조된 영역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의 역할 강화는 추후 원조와 개발 논의에서 민간과 연계하여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개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발전되었다.

(5) 식량안보 (Food Security)

식량과 농산물 가격의 과도한 불안정성을 감소하기 위해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고 가격 불안정성에 가장 취약한 식량의 안보를 강조하였다.

(6) 성장 복원력 (Growth with Resilience)

경제 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개도국에서 사회보장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복원력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개도국으로 송금되는 국가 간 송금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어 개도국 이민노동자의 수입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바탕이 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7) 금융소외계층 포용 (Financial Inclusion)

금융 소외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민간의 자본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이행 할 것을 공약하였다.

(8) 국내재원 동원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원조 혹은 차관 외에 국내 재원을 동원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세제개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세수 누수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9) 개발경험공유 (Knowledge Sharing)

선진국 개도국 간, 개도국 간(남남 협력), 혹은 삼자 간(triangular) 협력을 통하여 개발의 경험을 공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UNDP 등에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3. G-20 서울회의 이후의 논의 동향

정상회의 이후 G-20 개발의제의 후속조치는 '고위급 개발실무그룹 (High Level Development Working Group: DWG)' 회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2010년 정상회의 이후 2011년 9월까지 다음과 같은 3차례의 회동을 통해 분야별 시범사업 추진 및 행동계획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졌다.[5)]

(1) 제 1차 회의 (2011년 3월 21-22일, 파리)

(2) 제 2차 회의 (2011년 6월 30일-7월 2일, 케이프타운)
- 고용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 직업훈련전략 지원 사업(말라위, 베냉, 방글라데시) 향후 민간투자와 연계하기로 결정
- 인프라 구축 사업 : G20 차원에서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 진행 결정 (다자개발은행에서 구체적인 사업 진행 이행)

(3) 제 3차 회의 (2011년 9월 18-20일, 파리)
- 개발 분야 결과보고서 채택 : 인프라와 식량안보 중심

5) 한국은 개발그룹(DWG)의 공동의장이자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및 개발경험 공유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공동 조정국(co-facilitators)를 맡고 있다.

- 개도국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8대 행동 계획
- 인프라 고위급 패널(민간 전문가 + 다자개발은행) : 지역 인프라 사업 최종 선정(10월까지)
- 식량안보 : 농업연구, 농업 투자 증진, 위험관리도구(Toolbox) 개발, 식량비축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4. G20 서울개발의제 이행에 대한 평가

2011년 발간된 G20 평가 보고서(참고 [표 2])에 따르면 총 14개의 이행 과제 중 개발의제는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정책에 이어 세 번째로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6)]

[표 2] 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 과제 별 이행

Issue Area	Number of Commitments	Percentage of Commitments
Macroeconomics	28	18
Finance	24	16
Development	22	14
Trade	17	11
Reform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16	11
Energy	14	9
Corruption	9	6
Climate change	8	5
Socioeconomics	6	4
Accountability	4	3
Food and agriculture	2	1
Environment	1	1
International cooperation	1	1
Summit institutionalization	1	1

출처 : Annex : Breakdown of 2010 G20 Seoul Summit Commitments, 2010 Seoul G20 Summit Interim Compliance Report (13 November 2010 to 8 June 2011), The G20 Research Group, page 10

특히 서울 G20 정상회의 합의 과제의 국가별/과제별 중간 평가 점수(참고 [표 3])에 따르면 20개 회원국 중 중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두 개국을 제외하고

6) "Annex: Breakdown of 2010 G20 Seoul Summit Commitments", G20 Research Group: 2010 Seoul G20 Interim Compliance Report, 25 August 2011. Page 10 (http://www.g20.utoronto.ca/compliance/2010seoul-interim/)

는 개발의제에 대한 국가 별 이행 점수는 최소한 “이행 중(Work in Process, 0점)” 혹은 “준수함(Full Compliance, 1점)”으로 평가되었다.[7] 한국이 의장국의 입장에서 제안했던 개발의제가 G20 회원국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행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8]

특히 한국이 공동 주도국(co-facilitator)인 인프라 구축과 인적 자원개발은 파일럿 프로젝트가 이행 중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개발경험공유 부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G-20 개발의제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은 의안제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도덕적 책무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에 G-20에서 개발의제에 관한 한 상당기간동안 자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입장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2011년까지 G-20의 공동의장[9]이고 개발그룹(DWG)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국가이기에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예 : 인적자원개발, 무역, 개발경험공유)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7) <국가별 이행 평가> 이행 하지 못함 (lack of compliance, -1점) :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행 중(work in process, 0점) :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미국/ 준수 함(Full Compliance, +1점) :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러시아, 터키, 영국, 유럽연합, (2010 Seoul G20 Summit Interim Compliance Report, 2010년 11월 13일~ 2011년 6월 8일)

8) 참고 4. 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 과제 한국 이행에 관한 중간 평가

9) G-20는 상설 사무국이 없이 당해연도 개최국 정부가 의장국이고 전년도 회의개최국과 다음 해 총회 개최국의 3개국 정부가 의장단에 참여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순번형 집단지도체제이다.

[표 3] G20 서울정상회의 합의 과제 이행 국가별/과제별 중간 평가 점수

이행		ARG	AUS	BRA	CAN	CHI	FRA	GER	IND	INDN	ITA	JPN	MEX	KOR	RUS	S.AR	S.AF	TUR	UK	US	EU	AVG
1	Macroeconomy : Exchange Rates [40]	0	1	0	1	0	1	1	1	0	1	1	1	0	1	0	0	0	1	1	1	0.6
2	Macroeconomy : Fiscal Consolidation [48]	n/a	1	n/a	1	n/a	1	1	n/a	n/a	1	1	n/a	1	n/a	n/a	n/a	n/a	1	1	1	1.00
3	Finance : Basel III [51]	−1	1	0	1	0	0	0	0	1	1	0	0	0	0	−1	1	0	1	1	0	0.25
4	Socioeconomic [61]	1	1	1	1	1	1	1	1	0	1	1	1	0	1	1	−1	1	1	1	1	0.80
5	Finance : SIFIs [8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
6	Finance : OTC Derivatives [90]	0	1	1	1	1	1	1	1	n/a	1	1	1	1	0	−1	0	−1	1	1	1	0.58
7	Finance : Sound Compensation [92]	−1	1	0	1	1	0	1	0	0	0	0	1	1	0	0	0	0	1	0	1	0.40
8	Trade [96]	−1	1	−1	1	−1	0	0	1	0	0	1	1	1	−1	1	1	1	0	0	0	0.25
9	Development [122]	−1	1	0	1	1	1	1	0	0	1	1	−1	1	1	0	0	1	1	0	1	0.50
10	Energy : Inefficient Fossil Fuels [127]	0	1	1	1	−1	0	−1	0	0	−1	0	1	0	1	0	1	−1	1	0	−1	0.10
11	Energy : Clean Energy Technologies [135]	0	1	1	0	1	1	1	1	0	1	1	1	1	1	−1	0	0	1	1	1	0.65
12	Corruption [143]	0	0	1	0	1	0	−1	0	1	1	−1	1	1	1	−1	1	1	1	0	1	0.40
13	International Cooperation [152]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05
Country Average		−0.25	0.77	0.33	0.69	0.33	0.46	0.38	0.33	0.18	0.54	0.53	0.58	0.54	0.50	−0.17	0.25	0.17	0.77	0.46	0.54	0.40

출처 : http://www.g20.utoronto.ca/analysis.

n/a (Not Avaliable)

Ⅲ.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개최의 의의와 안건

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의 배경과 경과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국제사회는 개발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 번 점화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희년운동(Jubilee Movement)으로 최빈국에 대한 부채탕감 요구가 본격화되었고,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채택되면서 빈곤퇴치를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중이다. 개발원조 분야에서는 원조의 양(quantity)과 질(quality)을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상징하는 "More Aid, Better Aid"란 슬로건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회의(HLF on Aid Effectiveness)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포럼을 탄생시킨 직접적인 계기는 2002년 멕시코의 몬테레이(Monterrey)에서 UN이 개최한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이다. 50개국의 국가원수와 200명 이상의 장관급 인사 그리고 기업인,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한 대규모 회의에서 개발협력을 위한 재원증진을 촉구하는 한편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이를 계기로 OECD-DAC의 주관 하에 고위급포럼이 발족하게 되었다. 첫 번째 회의(HLF-1)는 2003년 로마에서 원조조화를 위한 고위급 회의(HLF on Aid Harmonization)로 시작되었고, 제2차 회의인 2005년 파리회의(HLF-2)에서부터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 on Aid Effectiveness)로 불리게 되었다. 제3차 회의(HLF-3)는 2008년 가나의 아크라에서 개최되었고, 원조효과성에 관한 성과 결산회의(HLF-4)를 2011년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 기존 세계개발원조총회(HLF)의 합의 내용

지난 3차의 총회를 통해 세계개발원조총회는 개발협력, 특히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중요한 규범들을 도출하였다.[10] 제1차 회의인 2003년 로마 세계원조총회(HLF-1)에서는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우선적인 실천과제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제시되었다. ① 원조는 수원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시점에 제공되어야 한다, ② 원조 공여국들은 개발현장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권한을 위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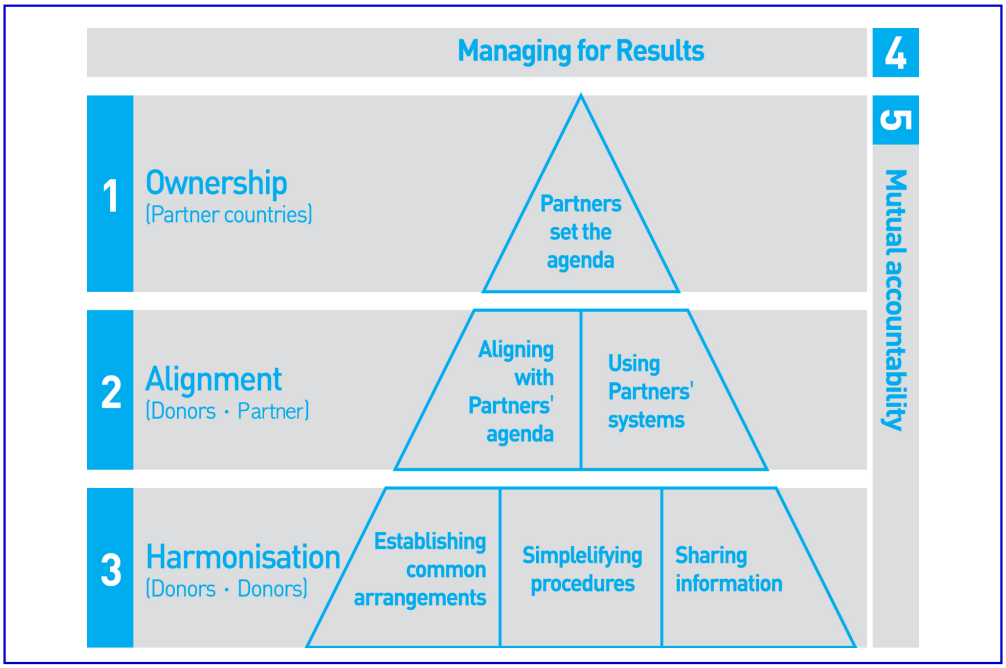
10) 이 장의 내용은 OECD-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에서 발간한 "The High Level Fora on Aid Effectiveness : A History"를 참조하였음.(http://www.oecd.org/document/63/0,3746,en)

고 신축성을 부여해야 한다, ③ 수원국들의 개발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례들이 발굴되어야 한다.

제2차 회의인 2005년 파리회의(HLF-2)에서는 최초로 공여국 뿐 아니라 수원국까지 참여하여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요인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화되었고, 2010년까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12개 분야의 이행지표들이 로드맵으로 제시되었다.

파리 HLF-2회의에서 제시된 주요한 개념은 아래 [그림 1]에서 도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취 (Ownership), ② 수원국의 개발을 위한 일관성(Alignment), ③ 공여국 및 원조기관 간의 조화성(Harmonization), ④ 결과지향적인 원조지원(Managing for Results), ⑤ 상호 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제고이다.

[그림 1] 파리선언의 중요 개념도



2008년 가나의 아크라에서 개최된 제3회 세계개발원조총회(HLF-3)는 수원국들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초청된 최초의 회의였다. 파리선언의 개념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동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AAA) 지표들이 제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강화, 공여국-수원국 간의 파트너십, 성과이행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되었고 역량개발이 중심개념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3.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의의

부산총회의 주관국 최고정책 담당자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 총회가 원조와 개발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부산 총회는 종료를 4년 남겨 놓은 MDGs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며, 회의 결과가 MDGs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둘째, 부산총회는 신흥공여국 및 민간활동가들을 포함한 개발협력계의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다. 셋째, 부산총회는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이행하는 부산총회 이후의 구조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11)]

이와 같은 의견에 덧붙여 부산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HLF-4)는 국내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고 있다.

국제사회의 시각

첫째, 부산 HLF-4는 그동안 로마-파리-아크라를 통해 구체화된 원조효과성의 개념과 이행방안 및 그 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부산총회는 그동안의 원조의 기술적 전달 측면에서의 효율성 또는 원조효과성 이행상황에 대한 소극적 점검을 넘어서서 원조집행의 결과를 중시하는 개발의 효과성이란 보다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셋째, 부산총회는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지각변동 과정을 겪고 있는 국제사회의 경제적 역학구조를 반영하는 회의가 될 것이다. 즉, BRICs의 등장, 아프리카의 부상, 중동의 민주화 등 지구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지배체제로 등장한 G-20의 개발의제가 다루어지는 회의가 될 것이다.

넷째, 부산총회는 아크라 회의가 개최되었던 2008년 이래 아직도 진행 중인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에 대한 열정을 재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섯째, 부산총회는 시민사회의 비공식적 참여를 인정했던 아크라총회의 결정에서 보다 진일보하여 OECD 고위급회의 최초로 국제시민사회단체를 개발의 동등한 파트

11) http://www.aideffectiveness.org/busanhlf4/en/newsroom/460-visions-for-busan.html

너 및 공식적인 대화상대자로 인정하는 회의이다. 이를 위해 총회 공식일정 전 3일을 시민사회단체 회의기간으로 공인하였다.

여섯째, 부산총회는 세계 경제 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성장한 아시아에서 개최되고, 그 중에서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이 그 개최지라는 사실이다. 이는 향후 개발협력에 관한 세계적인 논의의 장에서 아시아 신흥공여국의 부상과 증대된 역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개최의 의의

첫째, 부산총회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 2010년 이미 G-20 개발의제 축조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1년 HLF-4의 개최국으로서 개발원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기에 부산총회는 21세기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부산총회의 결과물인 부산선언은 당분간 국제개발협력계의 가장 중요한 합의문으로 인구에 회자될 것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격 및 부산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는 공여국 정부간 회의를 넘어서서 수원국 정부, 국제기구, 원조기관 그리고 특히 국제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다원적 이해당사자 회의(multi-stakeholder meeting)이기에 행사를 준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당국 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의 국제화 관리능력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개발 시민사회단체들이 향후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부산총회에서는 한국의 개발경험이 중심담론 중 하나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성장을 통한 개발'이라는 고전적인 개발경제학의 정책처방이 재해석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한국의 성장전략이 개발효과성에 주효한 정책처방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지난 30여년 간 국제개발 분야에서 경원시되어온 성장우선전략은 21세기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부상될 것이고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오래된 미래'형 개발전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증으로 많은 개도국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로 여겨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개최 목적과 안건

개최 목적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개최목적은 ① 파리선언(2005년)과 아크라행동계획(2008년)의 이행결과 평가, ② 포괄적 개발맥락에서 원조의 영향과 역할 논의, ③ MDGs와 MDGs 이후를 향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도출의 세 가지이다.

당초 OECD의 원조효과성 분과위원회(WP-EFF)에서는 부산총회를 단순히 파리선언에 대한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성과를 독려하는 회의 수준으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MDGs의 종료시점이 4년 앞으로 다가오고 2010년 G-20 서울회의에서 개발의제와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이 채택되면서 국제개발협력계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부산총회가 기존의 원조효과성을 넘어서는 보다 중요한 장기적 개발주제를 다뤄야한다는 압력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HLF-4의 의제는 보다 포괄적인 개발의 문제를 다루는 회의로 확대될 수 있었다.

부산총회의 안건

부산총회의 의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즉, ① 기존의 원조효과성 논의, ② 포괄적 개발맥락에서의 원조, ③ 포괄적 파트너십 형성이 그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총회의 안건은 아래 [그림 2]의 일정표와 같이 파리선언의 점검, 10개의 주제(thematic sessions), 8개의 기초주제(building blocks), 2개의 토론주제 등 다양한 의제들이 예시되고 있다.

[그림 2] 부산총회의 일정과 안건

	Day 1 (29 Nov)	Day 2 (30 Nov)	Day 3 (1 Dec)
Morning	Plenary Welcome Address **Progress Since Paris : How Far Have We Come?** Review evidence from PD Monitoring & Evaluation	**Opening Ceremony** Key Speeches by VIPs (President of Korea, Heads of State, UNSG, OECD SG) setting the scene Report from CSO Forum and Parliamentary Forum	**3. How to Maximise Impact on Development? (in plenary)** Building blocks presentation on : • *Effective Institutions and Policies* • *Private Sector*
	Thematic sessions (in parallel), "**Lessons learned form Paris and Accra : Actions to move forward**" 1. *Ownership and Accountability* 2. *Country Systems* 3. *Addressing Aid I-ragmentation* 4. *Aid Predictability and Transparency* 5. *Results*	**1. Unfinished Business and Remaining Challenges (in plenary)** Building blocks presentation on : • *Transparency* • *Results and Accountability* • *Managing Fragmentation* ***Special Session** on **Gender*** (*in parallel with plenary 1*)	**A New Consensus on Aid and Development (in plenary)** Discussion on : • *Direction and Principles of Future Development Cooperation* • *Post-Busan Governance Framework*
Afternoon	**Thematic sessions (in parallel)** "From Aid Effectiveness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1. *CD and Knowledge exchange* 2. *Rights-based approaches* 3. *Fragility, Conflict, and Vulnerability* 4.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5. *Public-Private Cooperation*	**2. Diversity and Opportunities in an Evolving Development Landscape (in plenary)** Building blocks presentation on : •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 *Fragile States* • *Climate Finance*	**Closing Ceremony**
	(*Time allocated for side events*)	(*Time allocated for side events*)	
On-going	**Knowledge and Innovation Space (KIS) & Programme of Side Events**		

출처: http://www.aideffectiveness.org/busanhlf4/en/home/41-busan-hlf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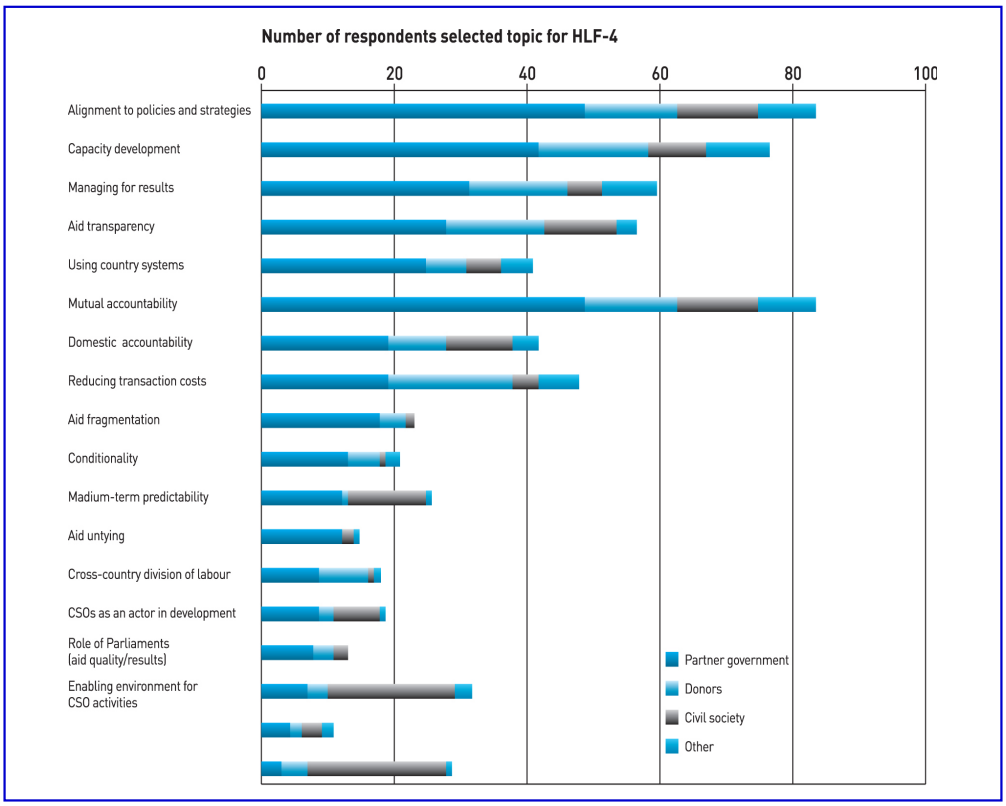
그러나 본 회의 뿐 아니라 시민사회포럼 및 의회포럼, 청년포럼 등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구촌의 문제들이 개발협력이란 시각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이 느끼는 우선순위는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OECD와 UNDP 등이 63개국 163명의 전문가들로부터 회수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오른쪽 [그림 3]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정책 정합성 – 역량개발 – 성과위주관리 – 투명성 – 상호 책임성 – 수원국의 국가체계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12)]

그러나 공여국과 수원국 그리고 시민사회가 느끼는 우선순위에는 상당한 차이가

12) What Do Partner Countries Want from HLF-4?: Results of the On-line Consultation, OECD Working Party for Aid Effectiveness (2011.2.22)
(http://www.aideffectiveness.org/busanhlf4/images/stories/hlf4/20110222-PC-poll-results-web.pdf)

노정되고 있다. 공여국들은 수원국의 국가체계 – 역량개발 – 원조의 투명성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제시한 반면 수원국들은 정책정합성 – 역량개발 – 성과위주관리를 꼽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활동환경 – 시민사회의 개발전문성 강화 – 정책정합성을 우선순위로 지목하고 있다.

[그림 3] HLF-4의 안건 우선순위



출처: Busan 2011: Your Prio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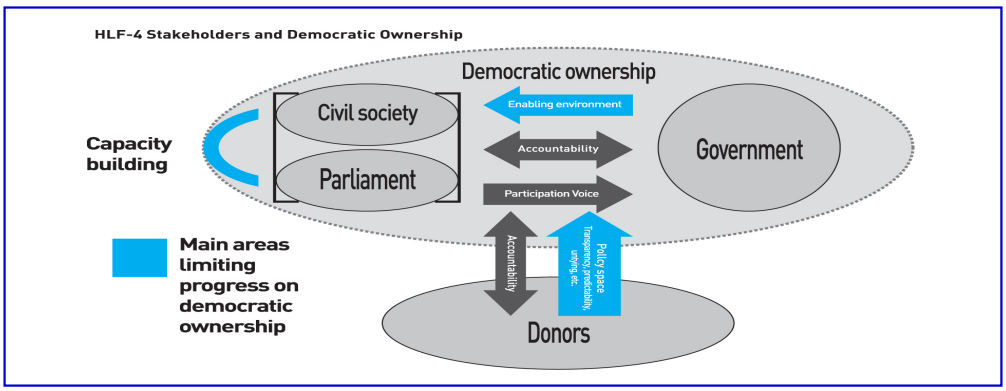
Ⅳ. G-20 서울개발의제와 HLF-4의 연계방안

2010년과 2011년은 한국이 국제개발 분야의 범세계적인 논의를 주도한 기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G-20 개발의제와 다년간 행동계획을 제시하였고, 2011년 부산 개발원조총회(HLF-4)에서는 부산선언을 통해 새로운 개발원조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산 HLF-4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그 가운데 한국이 주도한 G-20 개발의제가 부산선언에 투영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

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성공조건

국제시민사회는 부산총회가 성공적인 회의로 남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파리 및 아크라 합의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심화, 둘째,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과 양성평등, 인권과 양질의 근로기준 등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인권보장, 셋째, 국제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역군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넷째, HLF-4 이후에도 공정하고 공평한 개발협력체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OECD의 원조효과성 작업반을 승계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이 주도하는 보다 포괄적인 다자회의가 창립, 다섯째,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개발정책과정의 민주적 주인의식 고양과 같은 5가지 분야를 개혁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13] 국제시민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민주적 주인의식의 개념과 취약부문은 아래 [그림 4]와 같이 설명되고 있다.

[그림 4] 민주적 주인의식의 흐름



출처: Open Forum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http://www.cso-effectiveness.org)

13) http://www.aideffectiveness.org/busanhlf4/en/newsroom/457-civil-society-visions-for-busan.html

한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브라이언(Brian Atwood) 의장은 부산총회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첫째, 전체 관련 당사국은 물론 민간, NGOs들까지 포함한 폭넓은 파트너십, 둘째, 개발협력에 관한 새로운 합의와 개발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정책을 제거하기 위한 원칙채택, 셋째, MDGs 달성과 글로벌 공공재 확보를 위한 범지구적 노력의 활성화, 넷째, 최빈국 및 취약국의 안전확보와 역량개발의 필요성 인식, 다섯째, 개도국 주민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여섯째, 측정가능한 개발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공표하는 일에 대한 인정이라는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14)]

2. G-20 서울개발의제와 HLF-4의 연관성

서울 G20 정상회의 결과문서는 G20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서, 단기적 글로벌 금융 위기관리의 역할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체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포함한 저소득 국가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목적이 새천년개발목표 (MDGs) 달성과 절대 빈곤 근절을 위한 노력과 궤를 같이 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G-20 국가들은 M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환경개발을 위해 범세계가 합의한 개발원칙을 준수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10년 개최된 UN의 MDGs회의 및 2011년 개최될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와 공조할 것을 공지하고 있다.[15)]

그러나 G-20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눈길이 반드시 고운 것만은 아니다.[16)] 비록 G-20가 서구 선진국뿐 아니라 일부 개발도상국을 참여시키고 있지만 G-20에 소속되지 않은 G-174개 국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강대국에 의한 일방적인 국제질서의 확립이란 생각이 지배적이다.

OECD의 주관 하에 출범된 원조효과에 관한 고위급회의(HLF)도 처음에는 원조공여국들만의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5년 파리총회부터 수원국들이 초청되고, 2008년에는 민간원조기구와 시민단체가 초청되어 명실공히 개발협력에 관한 범세계적인 총회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따라서 HLF-4의 참여범위는 이제 G-20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HLF의 주제가 개발협력 특히 원조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면에

14) http://www.aideffectiveness.org/busanhlf4/en/newsroom/459-the-promise-of-busan.html

15) 서울 G-20 정상선언문 제53항

16) 노르웨이의 Jonas Gahr Store 외교부 장관은 G-20 결성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퇴보 중 하나라고 비판하고 있음 (Der Spiegel, 2010. 6. 22)

서는 G-20의 정책공간(policy space)보다는 적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G-20와 HLF-4의 의제는 어느 하나가 다른 주제를 포괄하는 계층적 구조라기보다는 개발이라는 공통주제를 둘러쌓고 있는 별개의 회의라고 이해할 수 있다.

3. G-20 서울개발의제와 HLF-4

G-20의 개발의제는 비록 '동반성장(shared growth)'이란 부제를 달고 있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시작되기 전까지 선도분야에 의한 비균형성장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G-20는 비교적 수직적(vertical), 하향지향적(top-down) 발전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국제개발계의 주도적인 사고방식은 경제성장이 사회개발 및 인간개발을 반드시 실현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가정 하에 보다 균형성장적 사고방식, 그리고 수평적(horizontal), 상향지향적 (bottom-up) 발전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두 회의의 접근방식과 철학은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 4]는 HLF-4의 의제와 G-20의 개발의제를 5개의 분야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두 의제 간의 공통분야는 역량강화와 평등 및 인권에서만 중복되어 있을 뿐 다른 분야에서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표 4] HLF-4 의제와 G-20 서울개발의제의 비교

<table>
<tr><th rowspan="2">분류</th><th colspan="2">HLF-4</th><th>G-20</th></tr>
<tr><th>10대 주제
(Themes)</th><th>8+1 기초 주제
(Building Blocks)</th><th>9개 핵심영역
(Pillars)</th></tr>
<tr><td rowspan="5">성장
(Growth)</td><td rowspan="5"></td><td rowspan="5"></td><td>인프라 구축</td></tr>
<tr><td>무역</td></tr>
<tr><td>민간투자확대와 고용창출</td></tr>
<tr><td>성장복원력</td></tr>
<tr><td>국내재원동원</td></tr>
<tr><td rowspan="4">원조구조
(Aid Architecture)</td><td>국가체제</td><td rowspan="2">원조 분절화</td><td rowspan="4"></td></tr>
<tr><td>원조 분절화</td></tr>
<tr><td>남남 및 3자 협력</td><td>남남 및 3자 협력</td></tr>
<tr><td>민관협력</td><td>민간부문</td></tr>
<tr><td rowspan="2">평등과 인권
(Equity and
Humanitarian)</td><td>인권기반접근</td><td>* (양성평등)</td><td>식량안보</td></tr>
<tr><td>취약, 분쟁</td><td>취약국</td><td>금융소외계층 포용</td></tr>
<tr><td rowspan="4">거버넌스
(Governance
and Advocacy)</td><td>주인의식과 책임성</td><td>투명성</td><td rowspan="4"></td></tr>
<tr><td>예측성과 투명성</td><td>결과책임</td></tr>
<tr><td rowspan="2">결과</td><td>기후변화 재원조달</td></tr>
<tr><td>효과적 기관 및 정책</td></tr>
<tr><td rowspan="2">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td><td rowspan="2">역량개발 및 지식교환</td><td rowspan="2"></td><td>인적자원개발</td></tr>
<tr><td>개발경험공유</td></tr>
</table>

출처: 저자 작성

이에 따라 일부 비판적인 국가 및 국제시민단체는 G-20 개발의제가 지나치게 경제성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후진국의 지배계층에게는 도움이 될지언정 대부분의 빈곤층에게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G-20 개발의제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HLF-4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① G-20 개발의제는 개발문제에 관한 세계 열강의 공통 관심사를 집약하여 만든 의제이기에 HLF-4에서 이루고자 하는 합의를 정치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제시하고 있는 개발목표의 실현가능성을 높여 준다. ②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이상의 국제개발 전반을 다루고 있기에 HLF-4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효과성 논의를 용이하게 도와준다. ③ 국제기구는 물론 G-20 회원국인 선도 개도국(예: 중국, 브라질, 터키 등)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 ④ HLF-4에서 채택될 개발의제를 역으로 다시 향후 G-20 의제에 투영시키는 선순환적 누적상승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⑤ 무역역량 배양 및 '무관세 무쿼터(DFQF)' 등 개도국의 시장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 구축에 기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G-20와 HLF-4는 상호보완적인 역할(complementarity)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G-20 개발의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이 초래할 수 있는 소득분배 악화 등의 폐해를 HLF-4의 기본철학인 사회개발 위주의 성장이 보정할 수 있고, 반대로 사회개발/인간개발 위주의 개발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지원할 수 없는 단점을 경제성장 중심의 G-20 개발의제가 보완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4. G-20 서울개발의제와 HLF-4의 연계추진전략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 2011년 세계원조개발총회, 그리고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를 거듭 개최하여 21세기 초 국제사회의 안건설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한국의 역할은 한 세대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경이적인 개발성과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개발협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주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낸 개발의제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여 HLF-4에 투영할 수 있다면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적 고려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물론 정부 내부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HLF-4는 G-20보다 훨씬 많은 국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이고, 국제사회의 정당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회의란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회의가 특정 부처(외교통상부)의 행사가 아닌 범정부적인 행사이고 한국의 조정자적 역할이 돋보일 수 있도록 정부 뿐 아니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2) G-20는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급박한 필요성에 의해 급조된 국가 간 정책조정기구이다. 따라서 G-8이나 OECD는 물론 여타 국제기구의 기능과 중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상황의 추이에 따라 그 존속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기구이다. 그러므로 2010년에 채택된 G-20 개발의제를 2011년 HLF-4의 틀 안에 성공적으로 이식시키지 못할 경우 자칫 서류로만 남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3) G-20 활동에 대한 비G-20 국가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고려하여 우리의 성장전략에 바탕을 둔 정부주도형 성장중심 개발전략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고 그들이 선호하는 사회개발 및 인권중심적 개발전략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장전략과 더불어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이나, 인적자원개발을 강조하는 혼합형 개발전략을 제시하는 방법을 구상해 볼 수 있다.

(4) 중국, 인도, 터키 등 DAC회원국이 아닌 신흥원조국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인프라개발 기금 설치 등 경제개발형 전략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역할이 돋보일 수 있는 제3자 협력 분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5) 한국의 개발경험에 도취되어 국제사회가 이미 합의에 도달한 몇가지 핵심적인 개발분야 (MDGs,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문제 등 지구적 공공재 보존 등)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개발경험(혹은 지식) 전수라는 직접적인 접촉방식보다 개발을 위한 국제경제정책 공조 혹은 국내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이란 관점에서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수원국들의 거부감을 덜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6) 한국의 정부 당국자와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이 원조만능주의의 터널 속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더 큰 관점에서 국제개발과 빈곤타파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논리와 이론적 틀을 장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본 회의에서 역할을 담당할 한국인 대표들을 특정 부처 출신의 급조된 전문가로 구성하지 말고 다년간 세계의 개발문제 및 개발협력에 천착해 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발

원조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시민사회의 깊이 있는 전문가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7) G-20 개발의제 형성에 참석했던 국내 전문가들에게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을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이 신자유주의적 주류 경제학자 출신이기에 정부주도 혹은 기업주도의 단순한 논리로 국제개발문제를 접근하여 자칫 소모성 분쟁거리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국제개발문제는 경제학의 패러다임보다 훨씬 미묘하고도 복잡한 장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V. 참고 문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http://www.kofid.org/ko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한국국제협력단. http://stat.koica.go.kr

G20 Research Group. http://www.g20.utoronto.ca

GCAP Global. http://whiteband.org/en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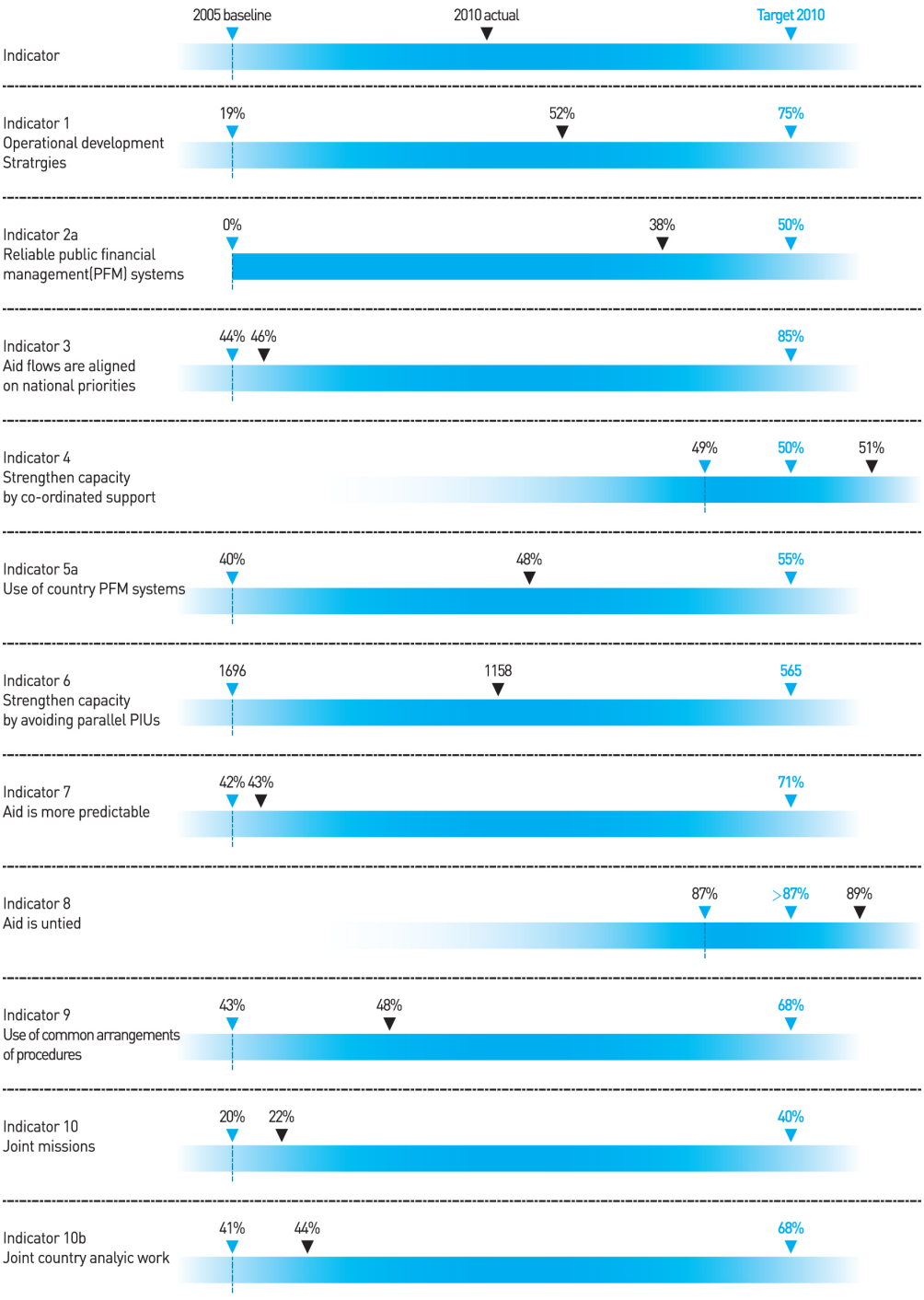
OECD. http://www.oecd.org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

별첨 1. 파리선언 이행 평가 (2011년)

Paris Declaration Indicator		2010 Actual	2010 Target[d]	Status
1	Oper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 of countries having a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rated "A" or "B" on a five-point scale[a]	37% (of 76)	75%	Not met
2a	Reliabl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PFM) systems % of countries moving up at least one measure on the PFM/CPIA scale since 2005[a]	38% (of 52)	50%	Not met
2b	Reliable procurement systems % of countries moving up at least one measure on the four-point scale since 2005	–	No Target[c]	–
3	Aid flows are aligned on national priorities % of aid for the government sector reported on the government's budget[a]	41%	85%	Not met
4	Strengthen capacity by co-ordinated support % of technical co-operation implemented through co-ordinated programmes consistent with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a]	57%	50%	Met
5a	Use of country PFM systems % aid for the government sector using partner countries' PFM systems[b]	48%	55%	Not met
5b	Use of country procurement systems % aid for the government sector using partner countries' procurement systems	44%	No Target[c]	–
6	Strengthen capacity by avoiding parallel PIUs Total number of parallel project implementation units (PIUs)[b]	1,158	565	Not met
7	Aid is more predictable % of aid for the government sector disbursed within the fiscal year for which it was scheduled and recorded in government accounting systems[b]	43%	71%	Not met
8	Aid is untied % of aid that is fully untied[a]	86%	More than 89%	Not met
9	Use of common arrangements or procedures % of aid provided in the context of programme-based approaches[a]	45%	66%	Not met
10a	Joint missions % of donor missions to the field undertaken jointly[a]	19%	40%	Not met
10b	Joint country analytic work % of country analytic work undertaken jointly[a]	43%	66%	Not met
11	Results-oriented frameworks % of countries with transparent and monitorable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s[a]	20% (of 44)	36%	Not met
12	Mutual accountability % of countries with mutual assessment reviews in place[a]	38%	100%	Not met

Performance across 32 countries participating in both the 2006 and 2011 Surveys



출처 : OECD(2011), Aid Effectveness 2005-10 :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http://www.aideffectiveness.org/busanhlf4/images/stories/hlf4/Progress_Since_Paris_Part_I.pdf)

별첨 2. G20 서울개발의제(Seoul Development Consensus)

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and reducing poverty are integral to our broader objective of achieving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and ensuring a more robust and resilient global economy for all."

~Toronto Declaration, June 26-27, 2010

In the wake of the most severe economic shock in recent history, the G20 has the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the reconstruction of the world economy in a form conducive to strong, sustainable, inclusive and resilient growth. Through the 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we seek to add value to and complement existing development commitments, particularly those made at the recent High-Level Plenary Meeting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in other fora.

Why Growth Must be Shared

At Pittsburgh we agreed to work together in an unprecedented process of mutual assessment to ensure our individual economic policies collectively achieved an outcome of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This Framework was borne of a recognition that for the world to enjoy continuing levels of prosperity it must find new drivers of aggregate demand and more enduring sources of global growth. We recognize as a crucial part of this exercise that we need to enhance the role of developing countries and low income countries (LICs) in particular, for the following reasons:

- First, because for prosperity to be sustained it must be shared.

- Second, because we acknowledge that the impact of the recent crisis demonstrated a global interconnectedness that is disproportionately affecting the most vulnerable in the poorest countries. It has been estimated that, as a result of the recent crisis, an additional 64 million people will be living in extreme poverty (i.e., living on less than USD 1.25 a day) by the end of 2010. We therefore have a responsibility to fulfill.

- Third, as the premier forum for ou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because the G20 has a role to play, complementing the efforts of aid donors, the UN system,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 and other agencies, in assisting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LICs,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Our role must relate to our mandate on global economic cooperation and recognize that consistently high levels of inclusive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and LICs in particular, are critically necessary, if not sufficient, for the eradication of extreme poverty.

- Fourth, because the rest of the global economy, in its quest for diversifying the sources of global demand and destinations for investing surpluses, needs developing countries and LICs to become new poles of global growth – just as fast growing emerging markets have become in the recent past.

Our overarching objective of helping LICs improve and maintain the levels and quality of growth, thereby reducing poverty, improving human rights and creating decent jobs, requires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s among high, middle and low income countries. This entails

promoting sustainabl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honoring equity in the partnerships that exist; building stronger and more effective partnerships among advanced countries, emerging countries and LICs; engaging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and refocusing our priorities and efforts to remove the bottlenecks for LIC growth. We further believe there is no "one-size-fits-all" formula for development success and that developing countries must take the lead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development strategies tailored to their individual needs and circumstances.

G20 Development Principles

We therefore commit ourselves to a Multi-Year Action Plan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is Plan will be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intended to capture the key characteristics of our actions and policies:

1. ***Focus on economic growth.*** *Be economic-growth oriented and consistent with the G20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which requires narrowing of the development gap. More robust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LICs will also go hand-in-hand with their capacity to achieve the MDGs. Actions and policies should have the capacity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prospects for inclusive, sustainable and resilient growth above business as usual.*

2.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Engage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LICs, as equal partners, respecting their national ownership and recognizing that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successful development is a country's own development policy. Ensure that actions foster strong, responsibl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development partnerships between the G20 and LICs.*

3. ***Global or regional systemic issues.*** *Prioritize actions that tackle global or regional systemic issues such as regional integration where the G20 can help to catalyze action by drawing attention to key challenges and calling on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MDBs, to respond. Focus on systemic issues where there is a need for collective and coordinated action, including through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to create synergies for maximum development impact.*

4.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Promote private sector involvement and innovation, recognizing the unique role of the private sector as a rich source of development knowledge, technology and job creation. Encourage specific ways to stimulate and leverage the flows of private capital for development, including by reducing risks and improving the investment climate and market size.*

5. ***Complementarity.*** *Differentiate, yet complement existing development efforts, avoiding duplication, and strategically focus on areas where the G20 has a comparative advantage and can add value focusing on its core mandate as the premier forum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6. ***Outcome orientation.*** *Focus on feasible, practical and accountable measures to address clearly articulated problems that are serious blockages to significantly improving growth prospects for developing countries. Such measures should have the potential to provide tangible outcomes and be significant in impact. Implementation of G20 action on development should be monitored through an adequate accountability framework.*

In close consultation with our developing country and LIC partners, as well as releva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with development expertise, we have also identified nine areas, or "key pillars," where we believe action and reform are most critical to ensure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resilience in developing countries and LICs. These areas are: **infrastructure**, **private investment and job cre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trade**, **financial inclusion**, **growth with resilience, food security**,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and **knowledge sharing**. Creating optimal conditions for strong, sustainable and resilient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will require reform and transformation across each of these interlinked and mutually reinforcing key pillars.

Guided by our development principles and oriented around the key pillars, we have developed the following Multi-Year Action Plan on Development. We believe these action plans address some of the most critical bottlenecks to strong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resilience in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ICs, and have high potential for transformative, game-changing impact on people's lives, helping to narrow the development gap, improve human rights and promote gender equality. We commit to full, timely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se action plans and, to this end, will continue to closely monitor their progress, in synergy with other processes, including preparations for the Four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to be held in Korea in late 2011.

MULTI-YEAR ACTION PLAN ON DEVELOPMENT

The following sets out our concrete actions and outcomes to be delivered and developed over the medium term. Dates in parentheses denote deadlines to be met. The Development Working Group will continue its work and will monitor progress on the Multi-Year Action Plan by reporting to the Sherpas.

INFRASTRUCTURE

Gaps in infrastructure, including with respect to energy, transport, communications, water and regional infrastructure, are significant bottlenecks to increasing and maintaining growth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We are committed to overcoming obstacles to infrastructure investment, developing project pipelines, improving capacity and facilitating increased finance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ow income countries (LICs).

ACTION 1: DEVELOP COMPREHENSIVE INFRASTRUCTURE ACTION PLANS

We request the regional development banks (RDBs) and the World Bank Group (collectively,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or MDBs) to work jointly to prepare action plans that increase public, semi-public and private finance and improve implementation of national and regional infrastructure projects, including in energy, transport, communications and water, in developing countries, LICs in particular. The MDBs will pursue actions in the following five areas:

Information and needs assessment

- Identify infrastructure gaps, needs and funding requirement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regional and rural infrastructure, as well as opportunities to promote public-private and semi-public partnerships (*June 2011*); and
- Working with developing countries and regional agencies, deliver bankable growth-supporting regional connectivity projects, building on the momentum created by existing initiatives and facilities (e.g., Infrastructure Project Preparation Facility (IPPF),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 African Water Facility (AWF) and Asian Infrastructure Financing Initiative (AIFI)). (*November 2011*)

Internal practices

- Identify possible improvements in their lending guidelines, internal policies and practices with a view to overcoming bottlenecks that constrain infrastructure lending, disbursements and the speed of project implementation (*June 2011*); and
- Assess the sufficiency of internal resources for project preparation, institutional capacity development and risk mitigation. (*June 2011*)

Improving the domestic infrastructure investment climate

- Working with LICs on a demand driven basis, assess and diagnose institutional, regulatory, policy, and public sector capacity bottlenecks in LICs that hamper public, semi-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nd assist LICs in developing action plans within the context of national development goals and strategies to:
  (i) remove the bottlenecks to development, whole life costing and planning for investments in new infrastructure, operations and maintenance of existing infrastructure and rehabilitation of aging infrastructure;
  (ii) improve internal resource mobilization and increase fiscal space; and
  (iii) increase energy access, including by supporting more sustainable paths that make maximum use of cost effective renewable energy and resources, support energy conservation, and increase efficiency. (*November 2011*)

Special measures for regional integration

- Identify and make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specific institutional, regulatory and policy changes needed for national policies and regional architecture to respond to the physical and economic needs of regional projects (*November 2011*);
- Identify a limited number of regional initiatives with a plan for action to reduce bottlenecks and deliver concrete outcomes in these initiatives (*November 2011*); and
- Identify MDBs' institutional bottlenecks that may impede investment in cross-border and regional infrastructure projects. (*November 2011*)

Transparency and sustainability

- Working with existing pilots, develop an initiative ready for implementation to significantly improve transparency in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finance (*November 2011*); and
  - Assess how best to integrate environmental safeguards into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n effective and cost efficient manner. (*November 2011*)

The final outcomes of these MDB action plans should be reported to the Summit in France and be accompanied by an endorsement and commentary by the HLP (see below). *(June 2011 for preliminary report; November 2011 for final report)*

ACTION 2: ESTABLISH A G20 HIGH-LEVEL PANEL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We have created a High-Level Panel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HLP) to mobilize support for scaling up infrastructure financing. The HLP will last for one year, until the Summit in France.

Composition

- Approximately 12 members will be appointed in a non-executive capacity for their expertise and authority in developing country public infrastructure investment needs,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constraints in LICs, sovereign wealth fund investment criteria, public private partnerships, project finance, innovative finance, and risk management (*February 2011; December 2010 for appointment of Chair*); and
-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upport and resources will be provided by a dedicated group of experts from the MDBs and the private sector.

Terms of Reference

The HLP will:

- Review MDB policy frameworks and identify and recommend concrete measures to scale up finance and diversify the sources of affordable financing for infrastructure needs, including from public, semi-public and private sector sources;
- Take into account the limitations of risk bearing capacity of private and semi-public finance, lessons of successes and failures from the past and ongoing programs, best practice, the importance of durability and whole life costing, and innovative ways to mitigate and intermediate risks to attract finance; and
- Review the MDB Action Plan and provide independent comment in an iterative process to ensure workability, the maximization of the outcomes and a focus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transparency.
- The final outcomes of the HLP should be reported to the Finance Ministers meeting and to the Leaders at the Summit in France. *(June 2011 for preliminary report; November 2011 for final report)*

HUMAN RESOURCE DEVELOPMENT

Developing human capital is a critical component of any country's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 Adding to education initiatives related to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it is important for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ICs, to continue to develop employment-related skills that are better matched to employer and market needs in order to attract investment and decent jobs.

ACTION 1: CREATE INTERNATIONALLY COMPARABLE SKILLS INDICATORS

We call upon the World Bank, ILO, OECD, and UNESCO to work together to develop internationally comparable and practical indicators of skills for employment and productivity in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LICs, to assist them to:

- Better match training to employers' needs and future labor market opportun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 Identify gaps in the education system for basic level employable skills;
- Identify the links between education, health problems, gender gaps and life-long skills development; and
- Produce a comparable database across countries to serve as a monitoring tool for assessing employable skills development in LICs.

The relevant institutions will submit an interim report at the Summit in France, a final report on the skills indicators by 2012, and a final report on the comparable database by late 2014. (*2012; late 2014*)

ACTION 2: ENHANCE NATIONAL EMPLOYABLE SKILLS STRATEGIES

The MDBs, ILO, OECD and UNESCO have agreed today to form a unified and coordinated team with the aim of supporting a pilot group of self-selected LICs to enhance their national strategies to develop skills, improve productivity in existing jobs, and promote investment in new jobs. This action should:

- Focus on strengthening national and region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and programs;
- Build on the G20 Training Strategy submitted at the Toronto Summit and begin by identifying existing gaps that act as barriers to increasing investment in skills development and productivity, including through considering the impact of gender gaps and health problems such as non-communicable diseases; and
- Review the work done and, based on the results achieved, consider a wider roll-out of the program to LICs and middle income countries.

(*2012*)

TRADE

No country has grown and reduced poverty without access to and the ability to trade. Recognizing both the capacity and access to trade as key elements in economic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we are committed to facilitating trade with and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ICs.

ACTION: ENHANCE TRADE CAPACITY AND ACCESS TO MARKETS

- We agree to make progress towards duty-free and quota-free (DFQF) market access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y (LDC) products in line with Hong Kong commitments without prejudice to other negotiations, including as regards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We will explore, in collaboration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scope for further improvement and cooperation among G20 members lea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mmitment.

- We are committed to at least maintaining, beyond 2011, Aid for Trade levels that reflect the average of the last three years (2006 to 2008). We are also resolved to strengthen the role of South-South trade cooperation and to reinforce the involvement of the private sector in these measures. In parallel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se commitments, we will ensure that aid flows to other sectors are sustained. (*2011 and beyond*)

- We will engage fully in the ongoing processes of relevant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WTO, OECD, World Bank and other multilateral and regional development bodies, to monitor these commitments and evaluate their impact on LICs' capacity to trade. We will consider the outcome of the Global Aid for Trade Review of July 2011 and adjust our Multi-Year Action Plan on Development accordingly. (*2011*)

- To follow up on the Toronto Declaration, which asks international agencies, including the World Bank and other MDBs, to step up their capacity and support trade facilitation, we call on such institutions to coordinate a collective multilateral agency response by the time of the Global Aid for Trade Review in 2011. (*July 2011*)

- We ask the G20 Trade Finance Expert Group, together with the WTO Experts Group on Trade Finance and OECD Export Credit Group to further assess the current need for trade finance in LICs and, if a gap is identified, will develop and support measures to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trade finance in LICs. We call on the WTO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trade finance programs for LICs and to report on ac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consideration by the Sherpas through the G20 Development Working Group in February 2011. (*February 2011*)

- In order to develop practical measures that can be pursued nationally and regionally to support successful regional trade integration, in particular between African countries, we ask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in collaboration with the WTO and MDBs, to identify before the Summit in France the existing obstacles and barriers to regional trade integration in Africa. (*June 2011*)

PRIVATE INVESTMENT AND JOB CREATION

Domestic and foreign private investment are key sources of employment, wealth creation and innovation, which in turn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decisions and actions in this area are primarily those of investors themselves and those of developing countries in improving the policy environment for investment. Recognizing the centrality of private investment to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we will support and assist investors, developing countries and key development partners, such as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n their work to better leverage and maximize the economic value-added of private investment and to create globally competitive industries. We will work with successful existing initiatives such as the UN Global Compact, the Investment Climate Facility for Africa, the World Bank's Annual Doing Business Report and indicators, and the MDG Call to Action.

ACTION: SUPPORT RESPONSIBLE VALUE-ADDING PRIVATE INVESTMENT AND JOB CREATION

- We will identify, enhance as needed, and promote the best existing standards (developmental, social and environmental) for responsible investment in value chains and voluntary investor compliance with these standards. *(June 2011)*

- We request UNCTAD, UNDP, ILO, OECD and the World Bank to review and, consistent with best practice of responsible investment, develop key quantifiable economic and financial indicators for measuring and maximizing economic value-added and job creation arising from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value chains. Based on these indicators, the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make recommendations to assist developing countries to attract and negotiate the most value-adding investment to their economies. *(June 2011; Summer 2012*)

- We request the World Bank and relevant agencies, in association with the G20, to establish a G20 Challenge on Innovation to provide a platform for innovative solutions to be brought to scale and to showcase entrepreneurship aimed at solving social challenges (e.g. innovative services on business strategies focusing on youth unemployment). *(November 2011)*

  Based on the outcome, we will recommend how to engage the private sector to find innovative business solutions that meet the needs of the poor in a sustainable way. *(Summer 2012)*

- The G20, MDBs, UNCTAD, UNDP, ILO and OECD will, based on the outcomes of this and other work, assist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ICs, to develop action plans with the view to strengthen financial markets to boos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mprove the business investment climate, maximize the value-added of private investment and support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foreign and domestic investment. Existing international investment arrangements between G20 countries and LICs will be strengthened to promote investment in LICs. *(June 2012)*

FOOD SECURITY

We emphasize the need for increased investment and financial support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welcome commitments made through the 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 (GAFSP) and other bilateral and multilateral channels. We encourage additional contributions by the private sector, the G20 and non-G20 actors to support country-led plans and ensure predictable financing. We endorse the Rome Principles for enhancing global policy coherence and mitigating risks to sustainable agricultural productivity, access to food, nutrition and crisis prevention.

ACTION 1: ENHANCE POLICY COHERENCE AND COORDINATION

- In order to strengthen existing agriculture research systems we request the FAO and the World Bank to examine and recommend potential innovative results-based mechanisms, such as those examined by the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and advanced market commitments for enhanced agricultural productivity. (*March 2011)*
- We underline the need to fulfill our existing commitments on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We will review and monitor progress on G20 commitments and request the FAO, World Bank and OECD, in cooperation with the l'Aquila Food Security Initiative (AFSI), to monitor progress and report back at the Summit in France. *(March 2011 for preliminary report; June 2011 for final report*)
- We call for support to build capacity in tropical agriculture technologies and productive systems. (*Medium-term*)
- We request ke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FS), to identify bottlenecks and opportunities to increase policy coherence for food security consistent with the Rome Principles. The work should focus on harnessing the potential of the agriculture sector to advanc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enhance engagement with the private sector and strengthen North-South,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March 2011 for preliminary report; June 2011 for final report*)

ACTION 2: MITIGATE RISK IN PRICE VOLATILITY AND ENHANCE PROTECTION FOR THE MOST VULNERABLE

- We request that FAO, IFAD, IMF, OECD, UNCTAD, WFP, the World Bank and WTO work with key stakeholders to develop options for G20 consideration on how to better mitigate and manage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price volatility of food and other agriculture commodities without distorting market behavior, ultimately to protect the most vulnerable. We ask the World Bank to work with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agencies to develop measures to improve information on national and regional food stocks and food production projections, provide nutrition intervention for the most vulnerable, and ensure access to humanitarian supplies. (*March 2011 for preliminary report; June 2011 for final report*)
- We are committed to promoting increased procurement from smallholder producers and to strengthen their access to markets, in line with domestic and regional strategies. (*Medium-term*)
- We encourage all countries and companies to uphold the principles of Responsible Agricultural Investment. We request UNCTAD, the World Bank, IFAD, FAO and other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develop options for promoting responsible investment in agriculture. (*March 2011 for preliminary report; June 2011 for final report*)

GROWTH WITH RESILIENCE

Social protection systems and international remittances, together with improved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income security for poor commun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in particular LICs, providing buffers to those communities from the impact of external shocks and contributing to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aggregate demand. Lessons can be learned from the performance of specific social protection mechanisms in developing countries during the recent crisis, and applied for the benefit of LICs, including through South-South cooperation. Measures can also be taken to facilitate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international remittances, building on existing work in this area.

ACTION 1: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TO STRENGTHEN AND ENHANCE SOCIAL PROTECTION PROGRAMS

Recognizing the vulnerabilities expos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e call upon the UNDP, in consultation with the ILO, MDBs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 Identify lessons learned from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protection mechanisms in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ICs, during and after the crisis;
- Prepare best practice guidelines based on this experience; and
- Make recommendations on how to surmount barriers inhibiting cross-country knowledge sharing and program replication or expansion.

The primary focus of this work will be on social protection mechanisms that support resilient and inclusive growth by helping vulnerable communities to deal with external shocks. It should consider options for improving the timeliness and accuracy of poverty data, including through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UN Global Pulse Initiative.

The outcomes of this work, and of any relevant programs being taken forward by G20 members under North-South, South-South or triangular cooperation arrangements, will be reported to the Summit in France. *(March 2011 for preliminary report; June 2011 for final report)*

ACTION 2: FACILITATE THE FLOW OF INTERNATIONAL REMITTANCES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facilitating international remittance flows and enhancing their efficiency to increase their contribution to growth with resilience and poverty reduction. We ask the World Bank, RDBs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including the Global Remittances Working Group, to work with individual G20 members and non-G20 members in order to progress further the implementation of the General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Remittance Services and related international initiatives aimed at a quantified reduction of the global average cost of transferring remittances. The outcomes of this work will be reported to the Summit in France. (*November 2011*)

FINANCIAL INCLUSION

Given that more than two billion adults are excluded from financial services and millions of micro-,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MSMEs) face serious constraints in accessing finance, financial inclusion is fundamental for improving the livelihoods of the poor and in supporting MSMEs, and work as the engines of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ACTION 1: ESTABLISH THE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We will launch the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GPFI) to provide a systematic structure for implementing the G20 Financial Inclusion Action Plan in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Alliance for Financial Inclusion (AFI), the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CGAP), and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November 2010*)

The GPFI will (i) facilitate an efficient and effective information sharing mechanism; (ii) coordinate the various financial inclusion efforts (iii) provide systematic monitoring of progress over time (iv) mobilize financial support for activities as needed, and (v) launch and coordinate taskforces to address specific financial inclusion issues (e.g. financial inclusion data). The GPFI will coordinate its work with the APEC initiative and other financial inclusion initiatives.

The progress and annual report of the GPFI will be submitted to the Summit in France.

ACTION 2: SME FINANCE CHALLENGE AND FINANCE FRAMEWORK FOR FINANCIAL INCLUSION

SME Finance Challenge

We will announce the 14 winning proposals of the SME Finance Challenge that offer innovative models for catalyzing private capital for SME finance. (*November 2010*)

Finance Framework for Financial Inclusion

We commit to establishing a finance framework that mobilizes grant and risk capital for winning proposals from the SME Finance Challenge and for scaling up successful SME financing models. The framework will use existing funding mechanisms and the SME Finance Innovation Fund, a newly created multilateral trust fund.

ACTION 3: IMPLEMENT THE ACTION PLAN FOR FINANCIAL INCLUSION

We will adopt the G20 Financial Inclusion Action Plan to promote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for Innovative Financial Inclusion (the Principles) and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SME stocktaking exercise. (*November 2010*)

The actions to be implemented include (i) advan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through a commitment by each G20 member to implement at least one of the Principles; (ii) encourage the Standard Setting Bodies to further incorporate financial inclusion objectives into their work; (iii) encouraging further private sector activities to increase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iv) strengthening and expanding data availability for measuring financial inclusion and methodologies for countries that wish to set financial inclusion targets; (v) supporting peer-learning 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vi) improving coordination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vii) integrating financial inclusion into financial assessment programs.

The GPFI will submit a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at the next Summit in France (*November 2011*).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It is essential to continue to strengthen tax regimes and fiscal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to provide a sustainable revenue base for inclusive growth and social equity, as well as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finances.

ACTION 1: SUPPORT THE DEVELOPMENT OF MORE EFFECTIVE TAX SYSTEMS

We ask the expanded OECD Task Force on Tax and Development, UN, IMF, World Bank and reg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American Center for Tax Administration and 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to:

- Identify key capacity constraints faced by developing countries in their tax systems and make recommendations on capacity building to (i) improv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ax administrations and (ii) strengthen tax policies to broaden the tax base and combat tax avoidance and evasion (*June 2011*);
- Develop a knowledge management platform and promote South-South cooperation to support the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ies in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systems (*Medium-term*);
- Survey and disseminate all G20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ctions on supporting tax systems in developing countries (*June 2011*);
- Set up objective measures to track progress in the capacity improvement of LICs' tax administration systems (*June 2011*); and
- Identify ways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tax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through effective transfer pricing. (*June 2011*)

The results will be reported at the Summit in France. (*November 2011*)

ACTION 2: SUPPORT WORK TO PREVENT EROSION OF DOMESTIC TAX REVENUES

We ask the Global Forum to enhance its work to counter the erosion of developing countries' tax bases and, in particular, to highlight in its repor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on non-cooperative jurisdiction and development. (*Medium-term*)

The results will be reported at the Summit in France. (*November 2011*)

KNOWLEDGE SHARING

Sharing development experiences, including through North-South,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contributes to the adoption and adaptation of the most relevant and effective development solutions. We encour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World Bank, OECD and RDBs that operate knowledge sharing platforms to strengthen and broaden sources of knowledge on growth and development. We agree that knowledge sharing initiatives should be mainstreamed in each pillar in this Multi-Year Action Plan.

ACTION: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REACH OF KNOWLEDGE SHARING
We request the Task Team on South-South Cooperation (TT-SSC) and UNDP to recommend how knowledge sharing activity, including North-South,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can be scaled up. These recommendations should include measures to broaden knowledge sources, improve brokering functions, strengthen the dissemination of best practices and expand funding options. *(June 2011)*

별첨 3.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결과문서 4차 초안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TITLE)

DRAFT

1. We, Heads of State and representatives of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heads of multilateral and bilateral institutions, representatives of different types of public, private, inter-parliamentary, local and regional organisations meeting here in Busan, Republic of Korea, recognise that we are united by a new partnership that is broader and more inclusive than ever before, founded on shared principles and common goals for effec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2. The world stands at a critical juncture in global development. Poverty and inequality remain the central challenge. The Millennium Declaration set out our universal mandate for development and, with the target date fo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less than four years away, the urgency of achieving strong, shared and sustainable growth and decent work in developing countries is paramount. Nowhere is this more urgent than in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tates. Political will is vital if these challenges are to be addressed.

3. As we reaffirm our development commitments, we realise that the world has changed profoundly since development co-operation began over 60 years ago.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have revolutionised the world in which we live, yet poverty, inequality and hunger persist. Eradicating poverty and tackling the global challenges that have adverse effects on the citizens of developing countries are integral to ensuring the attainmen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a more robust and resilient global economy for all. Our success depends on the attention we pay to the results and impact of our common efforts and investments as we address challenges such as health pandemics, climate change, economic downturns, food and fuel price crises, conflict, fragility, and vulnerability to shocks and natural disasters.

4. We also have a more complex architectur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characterised by a greater number of state and non-state actors, and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at different stages in their development, many of them middle income countries.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new form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modalities and vehicles for investment in development have also become more prominent, complementing North-South forms of co-operation.

5.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achieved many positive results. When we met in Monterrey a decade ago, we recognised that increases in volumes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must be coupled with more effective action to generate sustainable and transparent results for all citizens. Our dialogue in Busan builds on the foundations laid by previous High-Level Fora, which evidence shows remain relevant, and which have helped to improve the quality of development co-operation. Yet we recognise that progress has been uneven and neither fast nor far-reaching enough. We each reaffirm our respective commitments, and will implement in full the actions to which we have already agreed.

6. We can and must improve and accelerate our efforts. We commit to modernise, deepen and broaden our co-operation, involving state and non-state actors that wish to shape an agenda that has until recently been dominated by a narrower group of aid actors. In Busan, we forge a new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that embraces diversity and recognises the roles that all stakeholders in co-operation can play to support development.

7. Our partnership is founded on a common set of principles that underpin all forms of development co-operation, while recognising that the ways in which these principles are applied differ across countries at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and between the different types of public and private stakeholders involved. Lessons should be shared by all who participate in development co-operation. We welcome the opportunities presented by new and diverse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such as South-South co-operation, the contribution of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nd private actors, and will work together to build on and learn from their achievements and innovations, recognising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and respective merits.

8. Sustainable development results are the end goal of our commitments to effective co-operation. While development co-operation is only part of the solution, it plays a catalytic and indispensable role in supporting poverty eradication,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e reaffirm our respective commitments to scale up development co-operation. Over time, we should reduce dependency on aid in a phased manner, always taking into account the consequences for the poorest people and countries. In this process, it is essential to examine the interdependence and coherence of all public policies – not just development policies – to enable countries to make full use of the opportunities presented by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trade, and by expanding their domestic capital markets.

9. As we partner to increase and reinforce development results, we will take action to facilitate, leverage and strengthen the impact of diverse sources of finance to support sustainable and inclusive development, including taxation and domestic resource mobilisation, private investment, aid for trade, philanthropy, non-concessional public funding and climate change financing. At the same time, new financial instruments, investment options, technology and knowledge sharing,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re urgently needed.

Shared principles to achieve common goals

10. As we embrace the diversity that underpins our partnership in support of development, we share common principles which – consistent with our agreed international commitments on human rights, decent work, gender equal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disability – form the foundation of our co-operation for effective development:

a) *Ownership of development priorities by developing countries.*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can only succeed if they are led by developing countries, implementing approaches that are tailored to country-specific situations and needs.

b) *Focus on results.* Our investments and efforts must have a lasting impact on eradicating poverty, and inequality,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on developing countries' capacities, consistent with the priorities and policies set out by developing countries themselves.

c) *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s.* Openness and mutual respect lie at the core of effective partnerships that support the achievement of development goals, recognising the different and complementary roles of all actors.

d) *Accountability to our citizens and to each other.* Mutual accountability and accountability to the intended beneficiaries of our co-operation, our respective citizens, organisations, constituents and shareholders is critical to delivering results.

11. These shared principles will guide our actions to:

a) Deepen, extend and operationalise the democratic ownership of development policies and processes.

b) Strengthen our efforts to achieve concrete and sustainable results. This involves better managing for results, monitoring, evaluating and communicating progress, scaling up our support, and leveraging resources and initiatives in support of development results.

c) Broaden support for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and their adaptation to country contexts and needs.

d) Ensure that our co-operation is transparent and that transparent practices are promoted as a basis for enhanced accountability.

e) Ensure that our co-operation has a catalytic effect on development by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as they access the full range of available resources in their efforts to facilitate, leverage and strengthen the impact of diverse forms of development finance and activities.

12. We recognise the urgency with which these actions must be implemented. Beginning implementation now – or accelerating efforts where they are ongoing – is essential if our renewed approach to partnership is to have the maximum possible impact on the realisation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by 2015. To this end, we will:

a) Develop, in agreement with all actors concerned, appropriate frameworks at the country level for monitoring progress and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our respective commitments and, in turn, the achievement of lasting development results.

b) Collaborate to monitor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our common and individual commitments at the international level, drawing on appropriate indicators and targets linked with the focus of efforts at the country level.

c) Form a new, inclusiv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to oversee and support at the political level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ions agreed here in Busan.

Realising change: collaborative action and differentiated commitments

12.5. Today's complex architectur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reflects a world of multi-polar growth in which the sources of development solutions have become geographically diverse. The traditional donor-recipient relationship has given way to a model in which resources and knowledge are shared in a range of directions, between different types of actors and countries at different stages in their development. Many emerging economies have become important providers of development co-operation. The development challenges faced by these countries mean they also benefit from development co-operation provided by others, yet they have increasingly taken upon themselves the responsibility to share experiences and co-operate with other developing countries. At Busan these partners form an integral part of a new and inclusive agenda for effective co-operation, founded on common goals and an aspiration to implement actions in support of these over the longer term.

Improving the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co-operation

13. Progress has been made in advancing the aid effectiveness agenda, yet major challenges persist. Evidence has shown that – despite the challenges encountered in the implementation of our respective commitments – many of the principles underpinning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and Accra Agenda for Action have contributed to higher quality, more transparent and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14. We will sustain our high-level political engagement to ensure that the commitments made here in Busan are implemented. Within this context, those of us that endorsed the mutually agreed actions set out in Paris and Accra will intensify our efforts to implement them in full. Drawing on the evidence generated through periodic monitoring and the independent evaluation of the Paris Declaration, we will be guided by a focus on sustainable results that meet the priority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heir citizens, and will make the urgent changes need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our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Ownership, results and accountability

15. Together, we will increase our focus on development outcomes and results. To this end:

a) Developing countries' efforts and plans to strengthen core institutions and policies will be supported through approaches that aim to manage – rather than avoid – risk, including through the development of joint risk management frameworks with providers of development co-operation.

b) Transparent, country-led results frameworks and platforms will be adopted as common tools to assess performance with all concerned actors, based on a manageable number of outcome indicators drawn from the development priorities and goals articulated by developing countries. Providers of development co-operation will not impose additional frameworks, objectives or performance indicators on developing countries.

c) We will partner to implement an Action Plan to enhance capacity for statistics to monitor progress, evaluate impact, ensure sound, results-focused public sector management, and highlight strategic issues for policy decisions.

d) As we deepen our efforts to ensure that mutual assessment reviews are in place in all developing countries, we encourag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ll development co-operation actors in these processes at the country level.

e) Those of us who committed – through the Accra Agenda for Action – to further untie aid will accelerate our efforts in this area, [committing to untie all aid by 2015. In addition to increasing value for money, untying presents opportunities for business development, employment and income gene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We will improve the quality,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of reporting on the tying status of aid].

16. [Effective institutions and policies are essenti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stitutions fulfilling core state functions must be reformed and strengthened, alongside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providers of development co-operation, to facilitate the leveraging of aid resources by partner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will lead in efforts to strengthen these institutions, adapting to local context and differing stages of development. The use of country systems remains central to our efforts to build effective institutions. To this end, we will build on the commitments set out in the Paris Declaration and Accra Agenda for Action to:

a)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institutional and policy changes led by developing countries, resulting in the effective resource mobilisation and service delivery, including national and sub-national institutions, parliaments and civil society.

b) Assess country institutions, systems and capacity development needs, led by developing countries.

c) Support the development of improved evidence on institutional performance, to inform policy formulation, implementation and accountability, led by developing countries.

d) Deepen our learning on the determinants of success for institutional reform, engaging in the exchange of knowledge and experience at the regional and global levels.]

17. We must accelerate our efforts to achieve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through development programmes grounded in country priorities, recognising that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are critical to achieving development results. Reducing gender inequality is both an end in its own right, and a prerequisite for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As we redouble our efforts to implement existing commitments we will:

a) Accelerate and deepen efforts to collect, disseminate, harmonise and make full use of data disaggregated by sex to inform policy decisions and guide investments, ensuring in turn that public expenditures are targeted appropriately to benefit both women and men.

b) Integrate target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accountability mechanisms, grounded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mmitments.

c) Address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all aspects of our development efforts, including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18. Parliaments and local governments play critical roles in linking citizens with government, and in ensuring broad-based and democratic ownership of countries' development agendas. To facilitate their contribution, we will:

a) Accelerate and deepen the implementation of existing commitments to strengthen the role of parliaments in ensuring oversight of development processes, including by supporting capacity development – backed by adequate resources and clear action plans.

b) Further support local government to enable it to assume more fully its role going beyond service delivery, enhancing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at sub-national levels.

19. Civil society organisations (CSOs) play a vital role in enabling people to claim their rights, in shaping development policies and new partnerships and overseeing their implementation. They also provide services in areas that are complementary to or go beyond those provided for by states. Recognising this, we will:

a) Implement fully our respective commitments to enable civil society organisations to exercise their roles as independent development actors, with a particular focus on an enabling environment that maximises the contributions of CSOs to development.

b) Encourage CSOs to implement practices that strengthen their accountability and contribution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guided by the Istanbul Principles and the International Framework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Transparent and responsible co-operation

20. We will work to improve the availability and public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ther development resources, building on our respective commitments in this area. We will also work to make development co-operation more predictable in its nature. To this end, we will:

a) Make [the full range of] information on publicly funded development activities, their financing, terms and conditions, and contribution to development results, publicly available.

b) Focus, at the country level, on establishing transparent public financial management and ai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and strengthen the capacities of all relevant stakeholders to make better use of this information in decision-making and to promote accountability.

c) Implement a common, open standard [format] for electronic publication of timely, comprehensive and forward-looking information on resources provided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building on the achievements of the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and the statistical reporting efforts of the OECD-DAC, which are complementary]. This standard must meet the information needs of partner countries and key non-state actors. We will agree on this standard and publish our respective schedules to implement it by December 2012, ensuring full implementation by December 2015.

d) Providers of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endorsed the Accra Agenda for Action will implement fully their commitments relating to medium-term predictability of financing, [introducing structural and legal reforms where needed]. By 2013, these providers will make available the regular and timely rolling three- to five-year forward expenditure and/or implementation plans agreed in Accra to all developing countries with which they co-operate. Other actors will aim to provide developing countries with timely and relevant information on their intentions with regard to future co-operation over the medium term.

21. We welcome the diversity of development co-operation actors. As we work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impact of our efforts, providers of development co-operation have a responsibility to reduce fragmentation and curb the proliferation of aid instruments, while developing countries should lead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efforts to agree on effective actions at the country level. We will ensure that our efforts to reduce fragmentation do not lead to a reduction in the resources available to support development in any given country. To this end:

a) We will make greater use of country-led co-ordination arrangements, as well as programme-based approaches, joint programming and various forms of delegated co-operation.

b) We will improve the coherence of our policies on multilateral institutions, global funds and programmes and the positions that our representatives take in their governing bodies. We will make effective use of existing multilateral funding channels, focusing on those that are performing well, and will work to reduce the proliferation of these channels. [By the end of 2012, we will agree on guidelines / principles / targets to guide our joint efforts.] As they continue to implement their respective commitments on effectiveness, multilateral organisations, global funds and programmes will participate fully in co-ordination and mutual accountability mechanisms at the country, regional and global levels.

c) We will accelerate efforts to address the issue of countries that receive insufficient assistance, agreeing – by the end of 2012 – on principles that will guide our actions to address this challenge. These efforts will encompass all resource flows benefiting development.

d) Providers of development co-operation will deepen and accelerate efforts to address the problem of insufficient delegation of authority to their field staff. They will review all aspects of their operations, including delegation of financial authority, staffing, and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grammes, and implement measures that address the remaining bottlenecks.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situations of conflict and fragility

22. Fragile states are for the large part off track to meet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chieving them will depend on our collective ability to understand the unique challenges facing fragile states, overcome these challenges, and promote foundations for lasting development. We endorse the five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Goals – which prioritise inclusive politics, security, justice, economic foundations and the strengthening of countries' resource bases and revenues – as a new global framework through which the foundations for the achievement of the MDGs will be laid in these settings. We recognise the New Deal agreed by the International Dialogue on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as a means through which the achievement of these goals will be supported. In doing so, we commit to:

a) Develop joint plans at the country level, based on common assessments of fragility, and defining common priorities for the transition from fragility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along with the means through which these plans will be implemented.

b) Develop and implement co-operation agreements to ensure that peace processes and political dialogue relating to conflict or fragility are sufficiently funded.

c) Develop and use tools to assess the specific risk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fragile situations, conducting joint risk assessments, and using national systems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d) Develop and use [effective and accountable] emergency or fast-track procedures within co-operation agencies for financial management and procurement in fragile situations to improve the speed and flexibility with which assistance is provided.

Partnering to strengthen resilience and reduce vulnerability in the face of adversity

23. We must ensure that development strategies and programmes prioritise building resilience among people and societies at risk from shocks, especially in highly vulnerable settings such a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vesting in resilience and risk reduction increases the value and sustainability of our development efforts. To this end:

a) Developing countries will lead in integrating resilience to shocks and measures for disaster management within their own policies and strategies.

b) Responding to the needs articulated by developing countries, we will work together to invest in shock resistant infrastructure and social protection systems for at-risk communities; also, we will increase the resources, planning and skills for disaster management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From effective aid to co-operation for effective development

24. Aid is only part of the solution to development. It is now time to broaden our focus and attention from aid effectiveness to the challenges of effective development. This calls for a new vision for development. Within this vision:

a) Development is driven by strong,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b) Governments raise their own revenues to finance their development needs and, in turn, are accountable to their citizens for the development results they achieve;

c) Effective state and non-state institutions design and implement their own reforms and hold each other to account;

d) Developing countries increasingly integrate, both regionally and globally, creating economies of scale that will help them better compete in the global economy.

To realise this vision, we will rethink what aid should be spent on and how, in ways that are consistent with agreed international rights, norms and standards, so that aid catalyses development.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The inputs to sustainable development extend well beyond financial co-operation to the knowledge and development experience of all actors and countries.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in particular have the potential to transform developing countries' policies and approaches to service delivery by bringing effective, locally owned solutions that are appropriate to country contexts.

26. We recognise that many countries engaged in South-South co-operation both provide and receive resources and expertise at the same time, and that this should enrich co-operation without affecting a country's eligibility to receive assistance from others. We will strengthen the sharing of knowledge and mutual learning by:

a) Scaling up – where appropriate – the use of triangular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b) Making fuller use of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recognising the success of these approaches to date.

c)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networks for knowledge exchange, peer learning and co-ordination among South-South co-operation actors as a means of facilitating access to important knowledge pools by developing countries.

Private sector and development

27. We recognise the central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advancing innovation, creating wealth, income and jobs and mobilising domestic resources. To this end, we will:

a) Engage with representative business associations, trade unions and others to improve the legal, regulatory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private investment; and also to ensure a sound policy and regulatory environment for increased foreign direct investment,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e strengthening of value chains in an equitable manner, and the scaling up of efforts in support of development goals.

b) Ensure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olicies and strategies to foster sustainable growth.

c) Further develop innovative financial mechanisms to mobilise private finance for shared development goals.

d) Promote “aid for trade” as an engin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 help address market failures, strengthen access to capital markets, and to promote approaches that mitigate risk faced by private sector actors.

e) Invite representative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related organisations to play an active role in exploring how to advance both development and business outcomes so that they are mutually reinforcing.

Combating corruption and illicit flows

28. Corruption is a global plague that seriously undermines development, diverting resources that could be harnessed to finance development, damaging the quality of governance institutions, and threatening human security. It often fuels crime and illicit goods, and contributes to conflict and fragility. We will intensify our joint efforts to fight corruption and illicit flows, consistent with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nd other agreements to which we are party, such as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To this end, we will:

a) Implement fully our respective commitments to eradicate corruption, enforcing a culture of zero tolerance for all corrupt practices. This includes efforts to improve fiscal transparency, strengthen independent enforcement mechanisms, and extend protection for whistleblowers.

b) Accelerate our individual efforts to combat illicit financial flows by strengthening anti money laundering measures, addressing tax evasion, strengthening national policies, legal framework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tracing, freezing and recovery of illegal assets. This includes enacting laws and policies that facilitate improved international co-operation.

Climate change finance

29. Global climate change finance is expected to increase substantially in the medium-term. Recognising that this is a rapidly growing resource flow that brings with it new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we will endeavour to promote coherenc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across our approaches for the effective delivery of climate finance and broader development co-operation, including to:

a) Continue to support 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 and planning as an integral part of developing countries' overall national development plans, and ensure that – where appropriate – these measures are financed, delivered and monitored through developing countries' systems in a transparent manner.

b) Continue to share lessons learned in development effectiveness with those entities engaged in climate activities and ensure that broader development co-operation is also informed by innovations in the delivery of climate finance.

The road ahead: Partnering for progress towards and beyond the MDGs

30. We will hold each other to account for making progress against the commitments and actions agreed in Busan, alongside those set out in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and Accra Agenda for Action. To this end, we will:

a) At the level of individual developing countries, agree on frameworks for monitoring progress and promoting mutual accountability in our effort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our co-operation and, in turn, development processes. These frameworks and the indicators and targets agreed will respond to the specific context and needs of individual countries, and will be grounded in their aid and development policies. The results of these exercises will be published on a regular basis.

b) Agree, by June 2012, on a [limited] set of relevant indicators and targets through which we will monitor progress and support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our commitments, building on the initiatives led by developing countries, and informed by existing international efforts to monitor aid effectiveness. We will publish the results of these exercises [on an annual basis].

c) Support initiatives led by developing countries that strengthen their capacities to monitor progress and evaluate the impact of efforts to improve development effectiveness.

31. We accept that the strengthening of our co-operation and the adherence to both common goals and differentiated actions calls for continued high-level political support, as well as an inclusive space for dialogue, mutual learning and accountability at the global level. Regional organisations can and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supporting implementation at the country level, and in linking country priorities with global efforts. To this end, we will:

a) Establish a new and inclusiv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to support and ensure accountabil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commitments at the political level. This Partnership will offer an open platform that embraces diversity, providing a forum for the exchange of knowledge and the regular review of progress.

b) Agree, by June 2012, on the working arrangements for the Global Partnership, including its membership and opportunities for regular ministerial-level engagement that complements the work of other fora, including the UN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c) Call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to support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Global Partnership, building on their collaboration to date and their respective mandates and areas of comparative advantage.

* * * * *

별첨 4. 관련자료 목록

G20 관련 문서

1. 2010년 서울 G20 공식문서

(1) Seoul Summit Leaders Declaration
(2) 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3) Multi-year Action Plan on Development
--- Development Action Plan: Matrix of Mandates
(출처: http://www.boell.org/web/group_of_20-638.html)
(4) Development Issue Paper,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G20 Summit, Korea (한국정부/외교부, 2010년, 6월 17일)

2. 2010년 서울 G20 공식 평가 문서

(1) 2010 Seoul G20 Summit Interim Compliance Report (13 November 2010 to 8 June 2011), The G20 Research Group

3. 2010년 서울 G20에서 2011년 칸 G20까지의 정부 문서

(1)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코뮈니케
(기재부, 2011년 2월 18-19일, 파리)
(2) Communique - High Level Panel on Infrastructure investment
(인프라구축 투자 고위급 패널 회의 결과문서, 2011년 2월 24일)
(3) G20 개발그룹회의결과 (외교부 보도자료 2011년 3월 23일)
(4) G20 워싱턴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참석결과 보도자료
(기재부, 2011년 4월 14-15일) - 국문 (Communique - Meeting of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5) G20 개발그룹회의결과 (외교부 보도자료 2011년 7월 2일)
(6)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공동성명서 보도자료
(기재부, 2011년 8월 8일 (Statement of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7) G20 개발그룹(DWG) 회의 결과보고서 (2011. 9. 19)
2011 Report of the DWG version post Paris Meeting
(8) G20 개발장관회의 개발행동계획 보고서와 공동성명서 (2011. 9. 23)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4. 2010 서울 G20 시민사회 문서

(1) G20을 향한 시민사회 20가지 핵심권고안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2) Too Many Action Plans without Substantial Commitment
(ODA Watch 보도자료)
(3) G20 'Multi Year Action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ust be the Alternative for the poorest (한국월드비전)
(4) G20 정상회의에 대한 세이브더칠드런 평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5) Seoul People's Declaration
(6) 20 WAYS TO MEASURE G20 SUCCESS (GCAP)
(7) Oxfam International Brief on FTT (Oxfam Int'l)
(8) UK NGO Briefing Paper (Bond)

HLF-4 관련 문서

1. OECD DAC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1) Options for the process of finalising the outcome document for 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OECD DAC, 2011년 9월 29일)
(2) The Political Roadmap to Busan
(DAC Senior Level Meeting, 6 ~ 7 April, 2011)
(3) DAC statement on Welcoming New Partnership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AC Senior Level Meeting, 6 ~ 7 April, 2011)
(4) The Political Context for Busan – 5 Key Points: Intervention by Brian Atwood, Chair of DAC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Executive Committee, 2011. 3월)
(5) Draft Report on Workshop on Development Effectiveness
(26 October 2010, OECD, Paris)
(6) Road to Busan: 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ness
(29 November-1 December 2011), OECD DAC
(7) Third Draft Outcome Document for 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Busan, Korea, 29 Nov. – 1 Dec., 2011. Letter from the Co-Chairs (10, Oct. 2011)

(8) Progress towards more effective aid: what does the evidence show? (Talaat Abdel-Malek and Bert Koenders, Co-Chairs,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Oct. 2011)

2. 한국정부 공식/비공식 문서

(1) HLF-4 결과문서 Outline 초안 검토의견 (외교부 개발정책과, 2011.4.3)
(2) Busan 2011: Seeking a New Paradigm for Aid and Development (Sept., 2011) (2011 서울시민사회포럼-외교통상부 발표자료)

3. 시민사회 문서

(1) CSOs on the Road to Busan : Key Messages and Proposals (BetterAid, 2011, 4)
(2) BA Response to the Busan Outcome Document (BOD) submitted on 15 July (BetterAid, 2011, 7)
(3) Key Demands from Women's Rights Organizations and Gender Equality (BetterAid, 2011)
(4) Istanbul Principles for CSOs Development Effectiveness (Open Forum, 2010. 9)
(5) The Siem Reap CSO Consensus on the International Framework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Open Forum, 2011. 6)
(6)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의 입장과 정책 제언 (KoFID, 2011년 8월)
(7)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 임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해원협의 정책제안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11년 8월)

저자 약력

황 원 규

현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E-mail: hprime@kangnung.ac.kr)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홍 지 영

현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팀장(E-mail: endpoverty1017@gmail.com)
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합동 사무국(TFT) 팀장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연구자료 ODA연구 2011-13-248

KOICA 개발정책포커스 9호

발 행 2011년 11월
발 행 인 박 대 원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ODA연구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 461-833)
전 화 031) 740-0513
팩 스 031) 740-0681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동화인쇄사

[무단복제를 금함]

ISSN 2093-2111